

# 청각장애인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

## “손짓 언어로 자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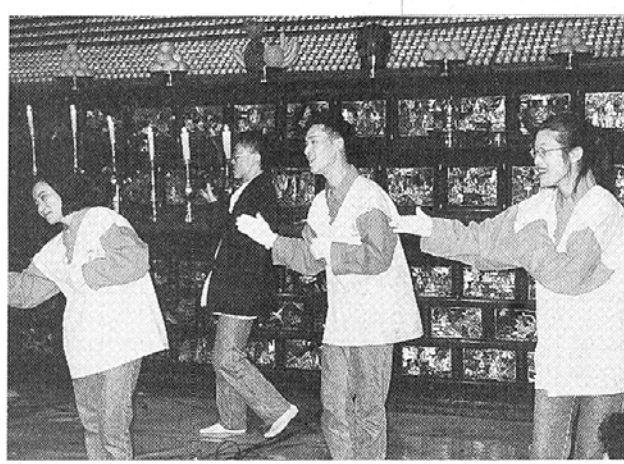
“원손을 퍼 바다를 향하게 만든 후 오른손을 퍼 왼손바닥을 쓰다듬고, 왼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 후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등을 쓰다듬으며 내리면 이것은 자비(慈悲)라는 뜻입니다.” 덕신스님의 설명과 함께 연간에서는 해성스님이 시범을 보이자 청각장애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따라한다.

“음.....”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어루만지듯 중생과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을 연상하여 만든 이

스님)와 연화복지학원(원장 해성스님)의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진정한 자비의 참뜻을 청각장애인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교계는 공인된 불교수화가 없어 불교포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교, 절, 스님 3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타종교 수화가 대부분이었던 현실에서 이날 열린 발표회는 39가지의 불교수화를 정리하고,

“불교수화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불교수화학을 일반도서관과 수화도서관, 농어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에 널리 보급해야 한다”면서 “불교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이 자 뿐만 아니라 일반 청각장애인들이 이해시키는



원심화와 연화복지학원은 각종 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노래공연등을 펼쳐왔다. <사진 위는 불교수화 '자비'의 시연 그림>

### 보살·윤회등 39가지 불교수화 발표 수화연구위원회 발족 '내용 보장'

“자비” 불교수화는 손가락 하나 하나가 중생을 나타낸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에게 끌어당겨 고통을 소멸시켜 준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1백여명의 청각장애인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교수화발표회’는 자비, 보살, 윤회등 39가지의 불교수화를 발표. 청각장애인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뜻깊은 첫자막이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비는 눈물과 사랑이라는 의미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인식돼 왔다. 그러던 것이 원심화(회장 덕신

스님)와 연화복지학원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원심화와 연화복지학원을 중심으로 불교수화의 활성화를 위한 ‘불교수화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석주스님을 고문(추대, 불교수화 연구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현재 보안중인 나머지 40가지의 수화도 불교수화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기영박사와 발산스님의 도움을 받아 불교적 교리에 맞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원심화의 덕신스님은 밝혔다.

연화복지학원의 해성스님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불교계에는 원심화와 연화복지학원, 부산에서 개인적으로 불교수화강의를 하고 있는 강주보살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각장애인을 위한 불교단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불교수화세미나를 기점으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불교포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참석한 불자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이은자 기자

### 신장 기증 ‘새 삶’ 기쁨 나눠 생명공양실천본부 이식 수술 2건 ‘성공’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명공양으로 실천하고자하는 불자들의 신장기증으로 두사람의 불자가 새생명을 얻게돼 화제다.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는 지난 11일 강원도 평창(남 41세)가 이상준씨(남 16세)에게, 지난 12일에는 유동성불자(남 26세)가 고순원불자(여 46세)에게 신

장을 기증해 신장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강원평, 유동성불자는 “신장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저의 신장을 기증해 심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이라며 생명공양의 기쁨을 밝혔다.



콜레라 방역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있었다. 이런 피해로 말하면 북한지역은 훨씬 그 정도가 심해서 유엔기구에 원조의 손을 뻗치고 있으니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홍수의 피해는

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콜레라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콜레라는 예견하지 못했던 전염병은 아니다. 동남아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로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지역에

균이 바로 콜레라균이다. 마하승지승이라는 불경에 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약 신자대에서 비구에게 음식을 공양할 때는 ‘물을 걸렀습니까?’ 하고 물어 보아서 만약에 ‘아직 안걸렀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에게 가르쳐서 물을 걸르도록 해야한다” 즉 음료수는 반드시 걸러서(정

결된 연후에 한번 끓여 마시도록 하면 완벽할 것이다. 이런 이치로 모든 음식을 끓인 연후에 먹는다면 아무리 콜레라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전염은 확실히 않을 것이다.

콜레라의 확산 속도가 빠른 이유는 음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음식은 입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꼭 걸러서 마시고 꼭 끓여서 마시고 먹으면 콜레라 균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왕 내 돈 보란듯이 세상에 알리고 내게 더 낫지

너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래? 그건 보라문고의 수행자, 사문(沙門)은 일반 수행자, 비구(比丘)는 불교의 출가 수행승을 말한다

이왕 내 돈 보란듯이 세상에 알리고 내게 더 낫지

너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래? 그건 보라문고의 수행자, 사문(沙門)은 일반 수행자, 비구(比丘)는 불교의 출가 수행승을 말한다

나의 치장이야 어찌 되었건 평온한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고 음욕을 끊고 산 목숨을 해치지 않으면 그는 바라문요 사문(沙門)이 되리라

바라문은 바라문고의 수행자, 사문(沙門)은 일반 수행자, 비구(比丘)는 불교의 출가 수행승을 말한다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까

오늘은 전 사원이 모두 참여 하겠답니다

박사장 강제 동원 아니죠?

회장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그런 수야...

돈만 내는 것 보다 수행 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야 그 어려움이 어떤지 제대로 알 것 같아서

그럼 수행 복귀 사업에 직접...?

누가 이 세상에 스스로 겸손하고 잘 참는 사람일까 그는 아무에게도 비난 받지 않으리라

좋은 말은 제력을 받지 않듯이

우리 회장님께선 벌써부터 수행 현장에 다녀셨지요 그런 말씀이

사원들이 모두 나서기로 한겁니다

백사장도 보세

제력을 받은 좋은 말처럼 부지런히 힘써 수도하라 믿음과 계행(戒行)과 정진으로

정신통일과 진리의 식별로써 시혜와 덕행을 겸비하고 깊은 생각으로

고공에서 벗어나라

### 이근후 건강칼럼

#### <35> 홍수 후유증

그 홍수가 활귀간 피해도 크려니와 홍수가 지나가고 난 연휴의 후유증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 한 예로 전염병의 창궐을 들 수가 있다. 보도에 의하

### 콜레라 극성 ‘위생 철저’...“끓이고 익혀 먹자”

서 홍수의 뒷물로 콜레라가 극심하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점으로 예기된 발생이라고 하겠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이 입을 통해 전염된다.

소위 수인성질환이라고 해서 물이나 음식 기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것에 묻어 들어가는

수)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당시의 인도사정을 말하는 것인 하지만 상당히 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친 흔적이다.

물을 여과하여 먹으라는 말은 물속에 섞여 있을 불순물이나 식수로 적합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물질을 걸러서 정수한 연후에 마시라는 뜻이다.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꼭 들어 맞는 가르침이다. 콜레라균은 입을 통해 들어가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선 물과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물을 걸러서 마신다는 것은 물속의 식수부적합물질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지만 콜레라 박테리아를 걸러는 물리적인 장치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광고국 02-737-0692
- 팩스 02-737-0697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856-3280

월간

# 대중불교

9월호

**정법의 눈**

석복소리 미음의 정치 / 정경희

특집 20주기 추모특집

고 대한 경경호 거사의 삶과 일관/이응림

특집기획 우리 속의 왜색문화

‘우리’ 만화를 위한 변호 / 정종영

화부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 / 박영희

개별의 빈곤과 수업의 과정 / 김남석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생명의 모태, 바다가 죽는다 / 성낙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얼과 문화 경주남산의 감실 부처/김영희 김성행

페시지를 찾아서

강화 봉은사지 / 김성영·최태신

불교와 민속 불교와 꼭두각시놀이/김종대

전통과 오늘 사이

함께 사는 사회의 불가명전/서동석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건축사학자 신영훈 씨 / 김희균

수행으로 가는 길(6)/삼성각

바른 기도와 발원 / 이재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8)

대상의 꽃 보시 바라밀 / 윤희타

교리산책(9) 정업과 부정업 / 정승석

에세이 보살불교(9)/지장보살(2)

지옥은 실존이다 / 일지

나의 수행담

물러설 수 없는 깨침의 세계로 / 대원성

스님께 들었습니다

열망하는 마음이 곧 극락이요/태원·김희균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면 도반

푸른 대륙 같은 청화 스님 / 효림

큰스님의 그늘

양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정복주

포교당 일기 부처님의 다이어트 법 /원욱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정복주·이시운·정춘석

**해외 불교 일기**

한생의 나라, 티벳(하) 영성과 비극의 나라/김신정

모스크바의 원불교 한글학교

버려진 땅에서 일어난 고려인을 위하여/김희균

봉주우르, 김상 토요 권각교실 / 지옥

**떠어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불교생활문화 터전 되는 노년구

법륜광사 / 오경숙

신행단체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 산책원지부 / 황유수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만 화

# 법구경

법 구 경

\* 폭력의 장 \*

좋은 말은 제력을 받지 않듯이

이 향 원

장회장 모시러 왔소이다

골프 코스 오래 됐다고 했잖은가

어! 그 차린새는 공사판이라도 나갈 참인가?

가만! 회장님이 왜 이리 쪼그라 들었지?

큰 일 하는 것도 없는데 평소 차지 않았잖아

이 신문에 사내 얼굴이 골프 공만하게 나와

현현현 용케 봤군 수재의 얼굴 좀 냈더니

자네가 이런 큰 돈을 낼 줄은 몰랐어

이 사람 왜 이러시나! 나도 사람구실 좀 하려고 그래

TV 방송국에도 의연금 기탁했더니 그날로 사진 찍고 이름 적자 터 나오대 현현현

그런데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잘못에 가는지 모르겠어

나제의 고행과 소리치며 들어 올린 상투

머리에 새를 바르고 단식을 하고

이슬내린 땅에 번지를 뒤집어 놓으라고

혹은 옹크리고 앉아 퍽퍽하지 이와 같은 갖가지 고행도 의혹을 품지 못한 자를 밝힐 수는 없다

\* 인도의 고행자들이 행한 고행의 여러가지 모습

이제 수재민이고 뭐고 눈 막 감아 버렸나?

눈은 감긴

그런 보다 더 크게 뜨고 있네

듣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사내, 거실에 없는 방법 찾았나 본데...

아왕 내 돈 보란듯이 세상에 알리고 내게 더 낫지

너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래?

나의 치장이야 어찌 되었건 평온한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고 음욕을 끊고 산 목숨을 해치지 않으면 그는 바라문요 사문(沙門)이 되리라

바라문은 바라문고의 수행자, 사문(沙門)은 일반 수행자, 비구(比丘)는 불교의 출가 수행승을 말한다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까

오늘은 전 사원이 모두 참여 하겠답니다

박사장 강제 동원 아니죠?

회장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그런 수야...

돈만 내는 것 보다 수행 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야 그 어려움이 어떤지 제대로 알 것 같아서

그럼 수행 복귀 사업에 직접...?

누가 이 세상에 스스로 겸손하고 잘 참는 사람일까 그는 아무에게도 비난 받지 않으리라

좋은 말은 제력을 받지 않듯이

우리 회장님께선 벌써부터 수행 현장에 다녀셨지요 그런 말씀이

사원들이 모두 나서기로 한겁니다

백사장도 보세

제력을 받은 좋은 말처럼 부지런히 힘써 수도하라 믿음과 계행(戒行)과 정진으로

정신통일과 진리의 식별로써 시혜와 덕행을 겸비하고 깊은 생각으로

고공에서 벗어나라